

복식사회 · 심리학분야의 연구경향 분석 I

(1974년부터 ~1994년까지)

건국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이 영 혜

건국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이 인 자

目 次

I. 서 론	3. 연구방법 분석
II. 연구방법	IV. 결 론
III. 연구결과 및 논의	참고문헌
1. 복식사회 · 심리학의 논제분석	ABSTRACT
2. 하위변인별 연구동향 분석	

I. 서 론

의류학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가정학의 한 분야에서 독립하여 많은 부분으로 세분화되고, 특히 타분야의 학문과의 연계로 큰 발전을 거듭해왔다.

복식사회심리학분야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사회심리학이 독립된 학문으로서 급성장을 함과 동시에 그들의 연구대상의 하나로서 의복이 변수로서 고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발달된 학문이다. (이인자, 1984)¹⁾ 그 이후로 의복연구에 있어서 심리학, 사회학, 사회심리학의 이론을 도입하여 여러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복식행동에 대한 이론이 정립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47년 사회학자와 가정학자들의 합동세미나를 시작으로 하여 활발히 발전되어오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74년에 대한가정학회지와 연세대학의 교수논문집에 발표를 시작으로(이인자, 1984)²⁾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복식사회 · 심리학이 도입된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연구경향을 세밀히 분석하여 지금까지의 연구과정과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아울러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할수 있어 매우 의의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에서 취득한 석 · 박사 논문 중 복식사회 · 심리학 계열의 논제를 정리하여 그 자료들 제공한다.

2. 현재 국내에서 발간되고 있는 의류학 관련연구 학회지인 대학가정학회지, 한국의류학회지, 복식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복식사회 · 심리학 계열의 논제를 정리하여 그 자료를 제공한다.

3. 위 논제들을 각 5년 단위로 분류하고 각 논제 및 연구변인을 분석하여 그 내용에 따라 연구경향을 파악한다.

4. 위 논문의 하위변인별 연구방법을 분석한다.
5. 이상의 연구결과가 복식사회심리학전반에 걸쳐 연구방법의 기초자료로서 이용되며 나아가 앞으로 연구 할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II. 연구 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과 현재 국내에서 발간되고 있는 의류학 관련연구의 학술지인 대한가정학회지, 한국의류학회지, 복식학회

지에 게재된 논문중에서 복식사회·심리학 관련 논문을 분석하였다.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은 복식사회심리학 논문이 처음 발표된 1974년부터 1994년까지 발표된 522편이고, 대한가정학회지는 1974년에 발표된 12권부터 1994년 32권까지 53편, 한국의류학회지는 창간호인 1977년 1호부터 1994년 18권까지 133편, 복식학회지는 1977년 창간호부터 1994년 23권까지 22편이며 총 730편이다. 이중에서 박사 및 석사 학위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하여 이중집계가 된 106편을 제외한 624편을 분석하였다. 학위논문이 학회지에 실린 경우는 학위논문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연도별 분석 논문수는 <표 1>과 같다.

<표 1> 학회지의 복식사회·심리분야의 발표논문의 빈도

연도	대한가정학회지			한국의류학회지			복식학회지		
	전체 논문수	복식사회·심리학 논문수	%	전체 논문수	복식사회·심리학 논문수	%	전체 논문수	복식사회·심리학 논문수	%
1974	3	1	33.3						
1975	10	1	10.0						
1976	21	3	14.3						
1977	5	0	0	11	1	9.1	9	0	0
1978	9	1	11.1	18	2	11.1	9	1	11.1
1979	7	1	14.3	12	0	0	6	0	0
1980	10	0	0	7	2	28.6	6	0	0
1981	13	2	15.4	14	4	28.6	17	0	0
1982	21	3	14.3	15	6	40.0	11	1	9.1
1983	18	4	22.2	14	10	71.1	8	0	0
1984	17	5	29.4	25	9	36.0	5	1	20.0
1985	14	2	14.3	24	4	16.7	6	0	0
1986	17	5	29.4	28	8	28.6	6	2	33.3
1987	18	4	22.2	29	7	24.1	4	1	25.0
1988	13	4	30.8	32	8	25.0	5	2	40.0
1989	15	5	33.3	38	8	21.1	10	4	40.0
1990	9	2	22.2	29	8	27.6	33	2	6.1
1991	13	1	7.7	41	10	24.4	36	3	8.3
1992	22	5	22.7	49	20	40.8	39	1	2.6
1993	11	2	18.2	54	11	20.4	32	4	12.5
1994	15	2	13.3	53	15	28.3	36	8	22.2
합계	281	53	18.9	493	133	27.0	278	30	10.8

2. 자료분류

수집된 자료의 분류는 이인자³⁾와 1992년 대한가정학회가 발행한 가정학 연구의 최신정보Ⅲ, 의류학편⁴⁾과 정찬진, 박신정, 황선진,⁵⁾ 조필교⁶⁾의 분류를 참고로 크게 복식사회심리 분야와 의류마케팅 분야로 2분야로 나누고, 다시 각 분야로 세분하였다. 각 논문의 분류는 일차적으로 논문제목을 중심으로 분류하였고 분류시 제목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논문은 각 내용에서 주된 독립변인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으나 논문의 페이지 조절을 위하여 본고에서는 (1) 복식사회심리 분야만 발표하였다.

(1) 복식사회심리 분야

- ① 대인지각 및 인상형성 : 대인지각, 인상형성에 있어서의 의복의 영향
- ② 개인의 심리요인 : 성격 및 자아개념, 가치관 태도 만족도 및 의상흥미
- ③ 사회문화 및 집단과 복식행동 : 연령, 사회계층, 환경과 배경, 동조성, 역할
- ④ 심리 및 정신적 부적응 : 스트레스, 우울, 정신장애등
- ⑤ 기타 : 측정도구개발.

(2) 소비자행동, 마케팅분야

- ① 의사결정과정 : 문제인식, 정보원탐색, 선택 기준, 구입행동, 구입 후 행동, 위험지각
- ② 상품선택도 : 상표 및 상품선택도
- ③ 전반적 구매행위 : 구매행동과 인구통계학적 변인
- ④ 유행 : 유행주기에 의한 소비자 집단
- ⑤ 라이프스타일, 시장세분화
- ⑥ 마케팅입장
- ⑦ 의류산업, 국제무역 및 기타

3. 자료분석

문헌 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수집된 분석자료는 연도별, 주제별로 나누었으며 각 항목에 따른 주제와 연구방법의 변화추이를 살피기 위해 5년단위로 분류하였다. 1974년 1월에서 1994년 12월까지 진행된 한국 박사 및 석사학위 청구논문 총목록, 대한가정학회지, 한국의류학회지, 복식학회지등 색인집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연도별로 나누었다. 자료의 통계처리는 빈도수와 백분율을 사용하였고 χ^2 -test로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분석프로그램으로는 SPSS PC+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1. 복식사회·심리분야의 논제분석

(1) 학회지

〈표 1〉은 학회지에 발표한 논제의 빈도를 비교한 것이다.

먼저 대한가정학회지는 1974년에 이인자⁷⁾의 복식사회·심리학 분야의 논문이 처음으로 발표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 분야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1970년대 후반은 규칙적인 증가세는 없으나 197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1980년에 들어 2~5편씩 꾸준히 발표되었고 의류학 전반에 걸친 논문중에서 14%이상의 비율을 보였으며 1989년에는 33.3%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1980년대에 비해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국의류학회지는 1977년에 창간된 이후로 지금까지 이 분야의 발표논문수가 가장 많았다. 초기인 1970년대 후반에서 1~2편에 불과하던 것이 1980년들어 복식사회·심리학분야의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의류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논문수도 10편이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한가정학회지가 가정학 전반에 걸쳐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의류학회지는 보다 전

문분야의 연구논문이 활발히 발표되고 있다고 간주된다.

복식학회지는 한국의류학회지와 같은 때인 1977년에 창간되었는데, 복식사회심리학에 관한 연구는 타 학회지와 비교해 볼 때 그리 많은 수의 논문이 발표되지는 않았다. 복식학회지는 한국복식사를 주로 발표하는 학회지이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복식학회지의 복식사회·심리학 분야의 논문은 지금까지 모두 22편이다.

학회지의 경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복식사회·심리학에 관한 논문은 한국의류학회지를 통해서 가장 많이 발표되었으며 다음으로는 대한가정학회지, 복식학회지 순이다.

(2) 학위 논문

<표 2>는 학위논문을 정리한 것이다.

1974년부터 1994년까지 복식사회·심리학 계열로 발표된 논문의 총수는 박사 41편, 석사 481편으로 모두 522편이 발표되었고 이 중에서 복식심리학에 관한 논문은 278편, 소비자행동 및 마케팅에 관한 논문은 244편이었다. 이는 의류학계통 학위논문의 16.5%, 14.5%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학위논문의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박사학위 논문은 1983년⁸⁾에 처음으로 발표되어 이후 1~5편의 논문이 1992년까지 발표되어 오다가 1993년에 13편으로 발표된 논문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박사 논문의 21.2%가 복식사회·심리학 계열의 논문임을 알 수 있다.

<표 2> 학위논문의 복식사회심리학 계열의 논문비도와 백분율

연 도	박 사			석 사		
	전체논문수	복식사회심리학계열논문수	백분율	전체논문수	복식사회심리학계열논문수	백분율
1974	0	0		26	3	11.5
1975	1	0		33	3	9.1
1976	0	0		26	0	
1977	0	0		31	4	12.9
1978	0	0		32	6	18.8
1979	0	0		47	4	8.5
1980	0	0		62	4	6.5
1981	0	0		57	11	19.3
1982	0	0		70	19	27.1
1983	5	1	20.0	91	29	31.9
1984	5	1	20.0	101	29	28.7
1985	6	1	16.7	89	33	37.1
1986	8	2	25.0	90	32	35.6
1987	6	3	50.0	81	36	44.4
1988	18	1	5.6	98	38	38.8
1989	19	4	21.1	93	35	37.6
1990	14	4	28.6	85	41	48.2
1991	20	4	20.0	94	39	41.5
1992	29	13	44.8	83	42	50.6
1993	22	5	22.7	95	31	32.6
1994	26	2	7.6	117	42	35.9
합계	179	41	21.2	1501	481	32.0

석사학위 논문은 1974년에 3편이 발표된 것을 시작으로 1980년까지 10편 이하로 발표되었으나 1982년 이후 1981년에 비해 약 2배 정도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1985년부터는 30편이상의 논문이 발표되어 1974년의 약 10배정도로 논문의 수가 증가하였다. 이후 1990년에는 40편이상이 발표되고, 1993년에는 약간의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994년 다시 40편이 넘는 수의 논문이 발표되어 총 481편의 석사학위 논문이 발표되어 전체 논문의 32%를 차지하였다.

2. 하위변인의 연도별 경향분석

1974년부터 1994년까지 연구변인의 변화추이를 하위변인별로 분석하면 <표 3>과 같다.

(1) 대인지각 및 인상형성

인상형성과 대인지각에 관한 연구는 송선옥⁹⁾의 연구를 시작으로 한동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 1990년에 나광주¹⁰⁾와 이주현¹¹⁾의 연구가 이루어진 이래 1994년까지 계속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2) 개인의 심리요인

개인의 심리요인은 1980년까지는 각 주제별로 1~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다양한 주제가 해마다 연구되어져왔다.

먼저 성격에 관한 연구는 1974년 이인자¹⁴⁾의 연구를 시작으로 1980년대 후반까지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1990년대 초반에서는 점차로 감소되는 추세이다.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는 임춘봉¹⁵⁾의 연구를 시작으로 1982년까지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1982에 다시 연구가 되어 1983년에는 6편, 1984년에는 5편의 연구가 이루어져 1980년에서 1984년 사이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복식사회심리학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던 이시기에 또한 가장 많이 다루어졌던 주제이다.

가치관에 관한 연구는 1974년 김광경¹²⁾의 연구가 처음으로 이루어졌으며 1978년 안정자¹³⁾가 가치관과 의복선호에 대해 연구를 하였으며 1980년부터는 각 학회지와 석박사 학위논문에서 다양한 변인과 함께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복식사회심리학에 가장 활발히 연구되었던 1980년부터 1984년동안 1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1985년 이후에는 점차로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태도에 관한 연구는 이남미¹⁶⁾의 연구가 1979년 발표된 이후 큰 폭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다.

심리적 만족도를 다룬 연구도 많이 발표되었는데 주로 의복행동과 신체만족도 또는 생활만족도를 연구하거나 의복만족도와 생활배경등을 다루었다. 이러한 연구는 1980년대 가장 활발히 연구되었으며 1990년대 이르러 감소하는 추세이다.

욕구와 의복행동을 다룬 논문은 이금실¹⁷⁾이 1978년 사회심리학적 변인에서 욕구를 다루었지만, 본격적으로 욕구와 의복행동을 다룬 연구는 1982년 정하신¹⁸⁾이 시작이라 할 수 있겠다. 이후 욕구와 관련된 의복행동을 다룬 연구는 1980년 이후 매년 1~2편씩 발표되었다. 1991년에는 4편이 발표되었으며 1994년에는 1편으로 감소하였다.

의상흥미와 관심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인자¹⁹⁾의 연구가 처음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부분 역시 1980년 1984년동안의 발표가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집단과 복식행동

사회집단 변인으로는 연령, 사회계층, 개인의 환경과 배경, 동조성, 역할등이 있으며 모두 76편을 분석하였다.

먼저 연령대에 따른 복식행동을 다룬 연구는 정삼호²⁰⁾의 연구가 있으며 1980년 초반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었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가 1990년대에는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사회계층에 관한 연구에서는 1975년 김영옥²¹⁾

의 연구가 처음으로 이루어졌고 한동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1981년 강은숙²²⁾의 연구부터 계속해서 매년 1~2편씩 이루어지고 있다. 복식사회심리학연구 전반에 걸쳐 변인들을 비교해 볼 때 사회집단에 관한 변인들은 아직 연구가 미진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정환경이나 생활배경과 복식행동을 다룬 연구는 이경남²³⁾을 시작으로 고른 분포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복식사회심리학의 연구가 가장 활발했던 198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여러 배경들과 의복행동을 연구

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1990년에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1994년에는 2편이 발표되었지만 지속적인 연구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동조성을 살펴보면, 1978년 김민수²⁴⁾의 연구에서 의복동조성을 다루었고 1982년 정미실²⁵⁾의 연구이후 1~2편씩 발표되었다.

역할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이 성역할에 관한 연구이며 1977년 정삼호²⁶⁾의 연구에서 성역할을 다루었고 1982년 이후부터 꾸준히 연구가 계속되어 1990년에는 4편이 발표되었으나 1990년 이후에는 1~2편이 발표되어 왔다.

〈표 3〉 복식사회심리학의 연도별 하위변인의 연구빈도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대인지각 및 인상형성										1		
개인의 심리요인	성격 및 자아개념	2		1		1	1			2	10	7
	흥미, 가치관 태도	2		1		3	2	1	5	7	7	10
사회문화 및 집단			1		1	2			3	4	3	8
정신적부적응									1		1	1
기타	측정도구의 개발									1		
	의복 및 색채선호도		1		1	1		2	1	1	5	3
	기타											1
합 계		4	2	2	2	7	3	3	10	16	26	30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합계
대인지각 및 인상형성							4	3	3	5	6	22
개인의 심리요인	성격 및 자아개념	6	5	2	3	2	7	5	5	1	1	61
	흥미, 가치관 태도	7	8	4	4	8	9	10	8	4	2	102
사회문화 및 집단		4	5	7	7	5	9	4	5	3	5	76
정신적부적응		3	1	1	3	4	1	3	1	3	3	27
기타	측정도구의 개발		1	2		1						41
	의복 및 색채선호도	2	2	5	4	1	2	7	3			5
	기타	1	1				1	1	1			6
합 계		23	23	21	21	21	33	33	26	16	17	340

(4) 정신적 부적응

정신적 부적응에 관한 연구는 우울, 스트레스, 불안, 정신장애에 관한 연구를 주로 다루었으며 모두 27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1981년에 발표된 최혜선²⁷⁾의 논문은 여고생의 불안감을 다루었으며 계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윤혜경²⁸⁾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하였다. 우울에 관한 연구로는

1987년 신현영²⁹⁾의 연구가 있으며 이순화³⁰⁾는 신체장애자에 대해서, 이인자³¹⁾는 정신장애자에 대해서, 정미경³²⁾은 지체부자유자에 대해 각각 연구하였다.

그러나 정신적 부적응에 관한 연구에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기타, 측정도구의 개발

측정도구의 개발에 관한 연구로는 1979년 이인자³³⁾의 의상의 흥미도 측정을 위한 검사지 개발에 관한 연구에 이은 1986년 의상의 흥미도 검사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³⁴⁾ 1982년 박혜선의 의복에 대한 의미미분척도에 관한 연구, 1987년 학령기 아동의 의복행동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와 1989년 배정주의 유행선도력 척도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등이 있으나 다양한 여러 분야의 측정도구 개발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복디자인 및 색채선호도에 관한 연구는 심리 변인들중에서 가장 많이 연구가 되었는데 이것은 다른 독립변인과 함께 연구된 것을 감안한다면 훨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선호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연령층을 달리한 집단에 관한 연구가 많았으며 이러한 선호도에 관한

연구는 1994년까지 꾸준히 연구되어오고 있다.

기타 연구로는 창의성, 지능, 직업적성과 의복 행동을 다룬 연구가 있다.

3. 연구방법 분석

이 장에서는 복식사회심리학의 학위 논문과 학회지에 실린 논문의 연구방법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의 분석은 각 하위변인별, 5년단위 (1974년부터 1979년까지는 연구의 편의상 6년동안)로 분류하였고 독립변인의 측정검사지와 측정방법, 그리고 표집대상 및 자료 분석 방법등을 고찰하였다.

측정도구의 집계는 사용되었던 측정지의 내용에 따라 중복집계하였으며 특정한 측정지외에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연구자가 제작하였을 경우에는 선행연구 및 연구자 작성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연구된 대상 역시 중복처리하였다.

(1) 대인지각과 인상형성

대인지각과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대상과 연구 방법에 관한 내용은 <표 4>과 같다. 대인지각에 대한 논문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1990년부터 1994년까지 모두 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그리 다양한 측정도구나 측정방법의 사용은 없었다.

<표 4> 대인지각 및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연구대상	1974~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4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대학생				1			5	7	
성인							2	4	
노년층								1	
측정방법	1974~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4		합 계
실험법 (자극물 제시)			1				21		22

그러나 대부분의 논문이 질문지를 사용한 반면 대인지각과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는 자극물을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는데서 일보진전했다고 생각된다. 대인지각에 관한 논문은 사진이나 슬라이

드 또는 Line Drawing을 이용한 자극물의 제시와 함께 의미미분척도를 위한 형용사가 적힌 설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한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으로는 남,녀 대학생이 대부분은

차지하였는데 실험자가 실험방법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위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인상형성은 대인지각의 한 부분으로써 연구된 기간도 짧고 주제가 갖는 한계성 때문에 대인지각에 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그 연구방법이 자극물을 제시하고 그 반응을 살피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1982년 처음 인상형성에 관한 논문³⁵⁾에서와 마찬가지로 예비조사를 통해 자극물과 의미미분형용사를 추출한 다음 피험자가 느낀 인상을 체크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예비조사결과 실험목적에 맞도록 일상복과 실험복을 사용하였으며^{36)·37)}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³⁸⁾에는 한복이 자극물로 선정되었다.

(2) 개인의 심리요인

개인의 심리요인에 관한 결과는 <표 5-1>부터 <표 5-7>에 제시하였다.

① 성격

성격에 관한 논문의 연구대상과 측정도구는 <표 5-1>과 같다.

<표 5-1>성 격

연구대상	1974~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4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유·아동					1	1		
국교생					2	2		
중학생			1	5				
고등학교			1	1	2		1	
대학생	2		1		2		1	2
성인	1		1		3			2

측정도구	1974~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4	합 계
· 정범모의 표준화된 인성검사	1	4	1	3	9
· 이진숙의 표준화된 향성검사		1			1
· 김기석의 일반성격검사		2		1	3
· 진위교, 김형립의 MMPI	1	1			2
· 정원식, 김형권의 표준화된 성격진단검사		2	1	2	5
· 김태연의 그림좌절검사			1		1
· Eysenk의 성격검사			2		2
· 황용연의 인성집단검사			1		1
· 이상로 변창진, 진위교의 표준화된 국민학교			2		2
· 고학년용 성격진단검사					
· Kaneoi의 내향성-외향성검사				1	1

· 성격과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는 모든 계층에서 골고루 연구되어졌는데 연구대상의 전반적인 분포가 여성으로 치우쳐져 있고, 성인남성을 연구한 경우가 없음을 감안할 때 비슷한 연구대상을 되풀

이하여 조사하는 것보다는 연구대상의 선정에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성격에 관한 측정지는 매우 다양하게 이용이 되었다. 가장 많이 사용된 측정지는 정범모의 표준

화된 인성검사지로서 각 연도마다 이용되었다. 그 외에도 각 연구마다 특성에 맞도록 여러 측정지를 사용하였다. 성격과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중에 의복행동에 관한 측정지로는 선행연구를 참고로 연구

자가 임의로 작성하거나 Creekmore의 'Composite Measures of Specified Clothing Variables'를 사용하였다.

〈표 5-2〉 자아개념

연구대상	1974~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4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국교생					1	1	1	1	
중학생									
고등학생				1	1	3		2	
대학생			3	6		1	1	2	
성인				2	2	5	2	4	
노년층			1	3		1		4	
측정도구	1974~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4		합 계
· 정원식의 표준화된 자아개념검사지			9		2		5		16
· Edinuston의 Index of Adjustment and Values Scal			1						1
· Cooper Simith의 Self Esteem Inventory			2						2
· 최정훈이 표준화된 지적향성검사					3				3
· Roger의 자아개념척도					1				1
· Brooker의 소비자 자아실현검사요강					1				1
· 김재은, 이광자의 자아실현검사요강					1		2		3
· 한국교육개발원 국민학교학생용 자아개념검사지			1		1		1		3
· Robison & Shrnak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					1				1
· Rosenberg의 Self EsteemScale							2		2
· 선행연구							1		1

② 자아개념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은 〈표 5-2〉에서 제시한 것과 같다. 연구 대상은 고등학생이상의 성인남녀로 매우 다양한 계층이 연구되었다. 학령기아동을 연구한 논문³⁹⁾과 노년기여성을 연구한 논문⁴⁰⁾ 등은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측정도구 또한 다양한 측정지를 사용하였다.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정원식의 '표준화된 자아개념 검사지'(1968)로써 16편의 논문에서 사용하였으며 그 외에도 각 연도마다 연구대상과 목적에 맞도록 많은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하

여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경우도 3편이 있었다. 자아개념과 의복행동에 사용된 의복행동 검사지는 Creekmore의 'Methods of Mearsuring Clothing Variables' 15편이었으며 그외에는 선행연구를 참고로 연구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14편이었다.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는 37편이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1편은 자극물을 제시⁴¹⁾하고 준비한 질문지에 기입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③ 가치관

가치관에 관한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은 <표 5-3>과 같다. 연구된 대상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성인으로 이 중에서 가장 연구가 많이 된 대상은 여대생었

다. 노년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경우는 없었으며 고등학생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도 1990년대에서는 한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치관에 관한 연구에 가장 많이 쓰인 측정지로는 Allport-Vernon-Lindzey의 가치관 검사지로 모두 15편의 논문에 사용되었다. 가치관에 관한 연구에 사용된 의복행동검사 측정도구는 Creekmore의 'Methods of Mearsuring Clothing Variables'가 1980~1984년에 1편, 1985~1989년에 3편, 1990~1994년에 2편이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연구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를 참고로 각 논문의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가치관에 관한 연구는 모두 질문지법이 사용되었다.

<표 5-3> 가치관

연구대상	1974~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4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고등학생				1	1	2		
대학생	2	3	1	8		2	1	3
성인			2	1		2	1	1

측정도구	1974~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4	합 계
· Allport-Vernon-Lindzey의 가치관 검사지	3	2	4	1	10
· Creekmore의 'Clothing Values Measures'		3		2	5
· Creekmore의 'Composite Measures Specified Clothing Values'		5			5
· 황용연의 가치관검사		2			2
· 정원식의 표준화된 가치관 검사		2	2		4
· 황용연, 이경혜의 개인가치관 검사				1	1
· 선행연구, 연구자		2			2

④ 태도

태도에 관한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은 <표 5-4>에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태도에 관한 연구대상은 유아동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이루어졌으며 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있음을 알 수 있다.

태도에 관한 측정도구는 Creekmore의 'Methods of Mearsuring Clothing Variables'가 12편에서 사용되어 다양한 의복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고 그

외에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자가 작성한 질문지가 10편이 발표되었다. 태도에 관한 측정도구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표준화된 도구가 없으므로 여러 방향에서의 다양한 측정도구가 사용되었다. 주로 외국에서 발표된 측정도구의 사용이 빈번한데 반

드시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올바른 수정작업이 필요하며 번역시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태도에 관한 연구는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표 5-4> 태 도

연구대상	1974~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4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국교생					1	1		
중학생						2		1
고등학생			1	2		2	1	6
대학생			1	1	2	3	1	4
성인				1	1	2		1
노년층						1		

측정도구	1974~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4	합 계
· Parnak의 태도에 관한 척도		2			2
· Selker의 Conformity in Dress in Methods of Measuring Clothing Variables	1			1	
· Creekmor의 'Methods of Measuring Clothing Variables'			6	2	8
· Kerlinger의 Scales for Measurement of Attitudes		1	3	1	5
· Schaefer의 양육태도 검사지			1		1
· Creekmor의 Eight Clothing Variables			6	2	8
· 김호권의 고등학교용 표준적용검사(1965)		1			1
· 선행연구, 연구자		1	11	5	17

⑤ 만족도

만족도의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은 <표 5-5>에 제시하였다.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의복만족도, 신체만족도, 직업만족도등과 의복행동을 다룬 연구논문들을 포함시켰다.

만족도에 관한 15편의 연구는 중학생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여러 가지 만족

도가 연구되었다.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신체만족도를 위해서 Secord와 Jourard의 측정도구를 7편의 연구에서 사용하였고 직업만족도는 Miller의 도구를, 의복만족도는 Mclean의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의복만족도는 선행연구를 참고로하여 연구자가 제작하였으며 유행의복 만족도는 Ryan의 연구를 기초로 연구자⁴²⁾가 작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그의 의복행동에 관한 질문지는 선행 연구들 참고로 각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모두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표 5-5〉 만족도

연구대상	1974~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4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국교생							1	2	
중학생								2	
고등학생	1		1		1			1	
대학생			3		2	2			
성인					1	2			
노년층									
측정도구	1974~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4		합 계
· Secord와 Jourard의 Body Cathexis Scale			2		2		3		
· Miller의 The Attitude Toward Any Occupation Scale			1		1		2		
· Mclean의 Clothing Satisfaction Scale			1		2				3
· 선행연구, 연구자			2		2		3		7

〈표 5-6〉 욕 구

연구대상	1974~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4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중학생					1	1		1	
고등학생	1		4		1				
대학생			2				1		
성인	1		1		2			4	
측정도구	1974~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4		합 계
· 황정규의 욕구진단검사	1		3		3		2		
· 이현주의 기호검사(미간행)			1						1
· Brooker의 자기실현검사							1		1
· Creekmore의 'Methods of Mearsuring Clothing Variables'			2		2		1		5
· 선행연구, 연구자	1		1		1		7		10

⑥ 욕 구

욕구에 관한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은 〈표 5-6〉에 제시하였다.

욕구에 대한 연구는 1978년에 이금실⁴³⁾이 의복

의 신분상징성에 대한 연구에서 가정주부의 과시 욕구를 사회심리학적변인으로 처리하여 연구하였다. 그뒤로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중학생에서 성인에 이르는 계층의 욕구를 연구하였다. 이 욕

구에 관한 연구 역시 여성이 집중적으로 연구되어 있다. 욕구에 대한 검사는 황정규의 욕구진단검사(1980)을 9편의 논문에서 사용하였으며 선행연구를 수정하여 연구자가 작성한 도구도 10편에서 사용되었다. 그의 Creekmore의 의복행동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욕구와 의복행동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⑦ 의상흥미

흥미에 관한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은 <표 5-7>과 같다. 흥미에 관한 연구는 일반적인 흥미와 의복행동을 연구한 논문과 의복흥미를 측정한 연구와 의복행동과 학습흥미를 연구한 논문을 포함시켜 조사하였다. 흥미에 관한 연구의 연구대상은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대상의 연령별로 볼때 고등학생에 대한 연구가 5편으로 조사되었으며 여대생은 의상흥미에 관한 연구⁴⁴⁾가 처음으로 시작되었을때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주부의 의상관심이나 의상흥미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초반에서 중반에 이르는 시기에 많아 연구되었다. 이시기의 연구는 4편 모두 주부와 성인 여성의 의상흥미와 다양한 변인들이 되었는데 간문자⁴⁵⁾는 의상흥미와 직업, 정하신⁴⁶⁾은 욕구등을 연구하기도 하였다. 흥미에 관한 측정도구는 윤필중의 흥미검시지(1973)이 2편의 논문에서 사용되었으며 그의 의상흥미를 연구한 논문에서는 이인자의 의상흥미도 검사지⁴⁷⁾를 4편의 논문에서 사용하였다. 흥미와 의복행동의 연구에서 의복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검시지는 Creekmore의 'Methods of Mearsuring Clothing Variables'가 3편에서 사용되었으며 그의 논문에서는 연구자가 목적에 맞도록 선행연구를 수정하여 연구자 자신이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표 5-7> 의상흥미

연구대상	1974~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4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고등학생					2		1	2	
대학생	1								
성인			4				1		
측정도구	1974~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4		합 계
· 이인자의 의상흥미도 검사지			1		1		2		4
· 윤필중의 흥미검시지	1						1		1
· 선행연구, 연구자 작성			1				1		1

(3) 사회집단과 복식행동

사회계층과 복식행동에 관한 결과는 <표 6-1>부터 <표 6-3>에 제시하였다.

① 동조성

동조성에 관한 논문의 연구대상 <표 6-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고등학생에서 성인까지 연구되었다.

측정도구로는 동조성에 관한 우리나라의 측정도구는 개발되지 않은 관계로 외국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Selker의 Clothing Conformity

Inventory concerning self가 2편에서 사용되었으며 선행연구를 참고로 연구자가 작성한 경우가 1편이다. 자극물에 대해서 정보적 영향에 관한 연구⁴⁸⁾에서는 실험연구방법으로 의복동조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복식사회심리학 측면에서 본 의복의 동조성에 관한 분석연구⁴⁹⁾에서 조사된 외국의 조사방법론과 비교해 볼때 우리나라의 동조성에 관한 연구는 질문지법에 치우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실험적 디자인의 연구개발이 요구된다.

〈표 6-1〉 동조성

연구대상	1974~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4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중학생			1						
고등학생			1		1	1			
대학생						1			
성인	1		1	1		1	1	2	
측정도구	1974~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4		합 계
· Selker의 Clothing Conformity Inventory concerning self	1				1				3
· Creekmore Methods of Measuring Clothing Variables			1						1
· 선행연구, 연구자			1				1		2
· 이론연구							1		1
· 실험연구							1		1

② 역 할

역할과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는 〈표 6-2〉에 제시된 것 처럼 주로 1980년대 중반부터 많이 발표되기 시작하여 다양한 계층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중학생에 관한 연구는 1989년 이미정의 연구에서,

학령기 아동을 다룬 연구논문은 원선주⁵⁰⁾에서만 다루어졌다, 성별로 보았을때 여성에 관한 연구가 월등히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남성을 대상으로 역할행동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표 6-2〉 역 할

연구대상	1974~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4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국고생					1	1	1	1	
중학생						1			
고등학생			1		1	3	2	2	
대학생	1		1	1	1	4	3	4	
성인						2	2	2	
측정도구	1974~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4		합 계
· Inventory of Feminine Values (Steiman & Fox)	1		2		1		1		5
· Hoffman & Angrist, Sex Role Ideology Scale	1		2		1		1		5
· Osmond-Martine Sex Role Attitude Scale			2		2		5		9
· Ferre Miller Feminism Scale			2		1		5		8

· Bem Sex Role Inventory	1	2	5	8
· Arroti-Feminisim scale			1	1
· Nelson의 AWS-S (Simplified Attitude Toward Worne Scale)			1	1
· Jem&Reynolds Sex Role Questionare		1		1
· 한국교육개발원 성역할 태도			1	1
· Eisler, Skidmore MGRS(Masuline Gender Role Stree)		1		1
· 선행연구		2	1	3

많은 연구가 여러종류의 측정지를 혼합하여 사용하였으며 선행연구를 참고로 한 질문지의 사용이 3편이 있었다. 가장 많이 사용된 질문지는 Osmond-Martine의 Sex Role Attitude Scale, Bem의 Sex Role Inventory이며 주로 Ferre & Miller의 Feminism Scale등을 함께 사용하여 검사지를 작성하였다. 그외에 Steiman & Fox, Hoffman & Angrist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학령기 아동의 역할에 관한 연구⁵¹⁾에서는 연구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Bem의 Sex Role Inventory를 5점척도를 3점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역할과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의복행동을 측정하는 검사지로는 Creekmore의 'Methods of Mearsuring Clothing Variables'가 3편에서 사용되었다.

③ 사회계층

사회계층에 관한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은 <표 6-3>에 제시하였다. 사회계층은 1985년에서 1990년에 가장 많이 연구(총 16편중 8편)가 되었으며 그 연구대상은 국교생부터 성인까지이다. 사회계층으로 대상을 분류한 1975년⁵²⁾의 김영옥의 논문에서 학령기아동을 연구한 것을 시작으로 1985년

이후에는 남,녀 성인에 대해 사회계층과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성별로는 여성에 관한 연구가 남성에 관한 연구보다 많았다. 사회계층에 관한 측정지로는 표준화된 검사지가 아직 개발되어지지 않았으므로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토대로 가장의 직업, 교육수준, 월수입등에 관한 것을 측정하여 분류하고 그 합계로 사회계층을 분류하는 주관적 접근법이 15편에서 사용되었다 김애련⁵³⁾의 연구에서는 가정의 월수입과 가장의 직업등의 두가지 척도로서 객관적 접근법(Objective Approach)에 의해 사회계층을 분류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사회계층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보다는 소득수준이나 가정의 물품소유등의 물질적인 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그치고 그에 따른 의복행동을 조사함으로써 사회학분야에서도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너무 쉽게 처리하여 조사한 경향이 보인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계층에 대한 좀 더 깊이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6-3〉 사회계층

연구대상	1974~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4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국교생	1	1	2	2	2	2			
중학생				1					
고등학생			1		2		1		
대학생			1						
성인					1	2	2		
측정도구	1974~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4		합 계
· 월평균수입(1인당 국민소득, 전도시) 소득분포			1						
· 1인당 국민소득, 가계소득의 증대와 갑종근로세, 소득계급별변화	1								1
· 월평균수입, 도시/농촌의 지구별 월평균수입, 육체/정신노동자의 소득분포			1		1				2
· 가장의 직업수준, 교육수준 가내물품 소유수준	1		1		1				3
· 부모의 교육수준, 소득, 보호자직업					2		1		3
· 객관적 접근법(가정의 직업, 가장의 수입)					1		1		2
· 소득, 가장의 교육수준, 직업, 가내물품소유정도					1				1
· 소득, 직업, 경제수준					1				1

(4) 정신적 부적응

정신적 부적응은 주로 불안감과 우울수준과 스트레스 및 정신적 장애에 관한 연구를 포함시켰으며 총 20편의 논문을 분석하였으며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은 〈표 7〉에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은 고등학생 이상의 성인인 연구되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의 심리적 요인이 더 많이 연구되었다. 80년대 후반에서는 주로 여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노년층에 관한 연구⁵⁴⁾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90년대 초반에는 여대생과 성인남녀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불안척도는 Lapitsky의 안전감-불안감 검사(1961)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Toy-

loy, Speiberg, Gorsach & Lushens의 상황-특성 불안척도에 관한 측정도구도 사용이 되었다. 그외 Creekmore의 'Composite Measures of Specified Clothing Variables'가 1985년에서 1989년사이의 연구에서 사용이 되었다. 우울수준에 관한 척도는 CES(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SDS(The Self-Rating Depression Scale)가 사용되었다. 이인자는 정상인과 정신장애자의 욕구와 의복행동에 관한 논문에서 EPPS(Edwards Personal Preference Schedule)를 번안하여 사용한 이현수의 욕구검사를 사용하여 정신장애자와 정상인과의 욕구와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는 Holmes &

Rahe의 SRRS(Socials Readjastment Rating Questionaire, Eisler과 Skidmore의 MGRS(Masculine Gender Role Stress)등이 사용되었다. 정신적 부적응과 의복행동에서 의복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로는 Creekmore의 'Methods of

Mearsuring Clothing Variables'가 3편에서 사용되었고 그외의 논문에는 국내의외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심리요인에 관한 논문은 모두 질문지법을 이용하였다.

<표 7> 정신적 부적응에 관한 연구대상 및 측정도구

연구대상	1974~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4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중학생							1	
고등학생			1		1			
대학생					1			2
성인	1				3	5	1	2
노년층						1		
정신장애자			1		1			
신체장애자			1	2	3			

측정도구	1974~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4	합 계
· Lapitsky의 안정감-불안감 검사(1961)		1	2		3
· Toyloy의 표준불안척도 한국판(Manifest anxiety Scale)			1		1
· Speiberg, Gorsach & Lushens의 상황 특성 불안 척도				1	1
· 국내외 선행연구				1	1
· CES-D(The Center for Epidem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1	1
· SDS(The Self-Rating Depression Scale)			1		1
· 이온주의 기호검사		1			
· SRRS (Socials Readjastment Rating Questionaire)			1	2	3
· MGRS(Masculine Gender Role Stress)			1		1

(5) 기타, 측정도구의 개발

① 측정도구의 개발

측정도구개발에 관한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은 <표 8>과 같다. 측정도구의 개발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의상의 흥미도 측정검사도구,⁵⁵⁾ 의미미분 척도의 개발연구,⁵⁶⁾ 의복선택기준에 관한 측정지

개발의 기초연구,⁵⁷⁾ 유행선도력 척도개발을 위한 기초연구,⁵⁸⁾ 학령기 아동의 의복행동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⁵⁹⁾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쓰이고 있는 도구는 연구목적에 맞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측정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로는 Creekmore의 'Methods of Measuring Clothing Variables'를 사용하거나 이 측정지를 기초로 국내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측정도구가 개발된 연구대상을 보더라도 아동에 관한 측정도구는 이명희⁶⁰⁾가 전부이고 그 외 노년층이나 성인, 중고등학생의 의복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없다. 앞으로의 연구는 여러 계층을 포함할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박혜선⁶¹⁾의 경우는 여러 종류의 의복을 슬라이드로 제작하여 실험함으로써 의미분척도의 개발 연구를 하였으며 그 외의 나머지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연구자가 관련 문항을 수정하거나 개발하여 측정도구를 제작하여 연구하였다. 앞으로의 연구에는 주제에 알맞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측정하기 쉬운 형태의 측정지를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② 의복 및 색채선호도

의복 및 색채선호도에 관한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은 <표 9>에 제시하였다. 의복 및 색채선호도에 관한 연구는 매년 꾸준히 연구되어 오고 있는 만큼 연구대상도 다양하지만 측정도구는 표준화된 검사지가 없는 관계로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참고로 임의로 작성하거나 여러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

에서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연구대상은 1980~1984년부터 유치원 아동부터 중고등학생이나 성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10편이 쓰여졌으며 1985년부터 1989년까지 국고생에 관한 연구 3편과 대학생에 대한 연구가 1편이 발표되었다. 성인과 노년층에 관한 연구는 1985년부터 1989년 사이에 총 9편의 논문에서 다루어졌으며 1990년대와서는 성인의 의복디자인과 색채선호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 성별로는 여성에 관한 연구가 22편, 남성의 의복디자인선호나 색채선호에 관한 연구가 13편이 이루어졌다.

색채에 관한 선호도에서는 색상을 제시한 후 그 선호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의복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연구자가 시장조사후 자극물을 선정한 후 역시 질문지에 답하는 방법은 사용하였다. 모두 9편의 논문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선행연구를 수정해 연구자가 사용한 경우는 17편이 사용되었다. 색상 선호도에 관한 연구는 Munsell의 색상환을 사용하여 색상측정을 하였다.

기타의 연구로는 성인남자의 의복습관에 관한 연구,⁶²⁾ 여자중학생의 지능과 의복행동과의 관계,⁶³⁾ 여고생의 직업적성과 의복행동,⁶⁴⁾ 유행 색과 사회현상과의 관계성연구,⁶⁵⁾ 창의성과 의복행동⁶⁶⁾을 다룬 연구가 있다.

<표 8> 측정도구개발의 연구대상 및 측정도구

연구대상	1974~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4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국고생					1	1			
대학생			1		1				
성인						2			
측정도구	1974~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4		합 계
· 선행연구, 연구자개발			1		2				
· 자극물의 제시, 질문지			1						1

<표 9> 의복 및 색채선호도에 대한 연구대상 및 측정도구

연구대상	1974~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4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유, 아동			1	1					
국교생					2	2	1	1	
중학생			1	1			1	1	
고등학생			1	3				1	
대학생							1	1	
성인			1	1	2	4		3	
노년층					1	2			
측정도구	1974~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4		합 계
· 사진자극물, 질문지			2		2		5		9
· 선행연구, 연구자			5		7		5		17
· Munsell의 색상환			2		5		4		11
· 기타							1		1

V. 결 론

이상으로 1974년부터 1994년까지의 복식사회·심리학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974년부터 1994년까지의 복사회·심리학분야의 연구동향은 논문이 처음 발표된 197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 복식사회심리학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심리적 요인이며 1980년대 이후 큰 증가세를 보였으나 1990년대에는 증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인지각, 측정도구의 개발에 관한 연구는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으며 사회집단 변인에 관한 연구는 감소추세에 있다.

3. 연구방법에 사용된 측정지는 주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질문지를 작성하여 연구하였다. 사용된 측정도구로는 대인지각과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는 발표된 논문 모두 실험법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가치관에서는 "Allport-Vernon-Lindzey의 가치관 검사지", 성격에는 "정범모의 표준화된 인성검사", 자아개념에는 "정원식의 표준화된 자아개념 검사지"(1968), 태도는 "Creekmore의 'Methods of Mearsuring Clothing Variables'와 "Eight Clothing Variables", 욕구는 "황정규의 욕구진단검사",

흥미에 관해서는 "이인자의 의상 흥미도 검사지", 색채 선호도 측정에서는 "Munsell의 색상환"을 이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한 자극물이 쓰였고, 정신적 부적응에 관한 연구에는 "Lapitsky의 안전감-불안감 검사"(1961), 만족도에는 "Secord와 Jourard의 Body Cathexies Scale", 사회계층, 환경 및 배경에는 표준화 된 검사도구가 없으므로 연구자가 임의로 작성하였으며 동조성에는 "Selker의 Clothing Comformity Inventory concerning self", 역할에는 "Osmond-Martine Sex Role Attitude Scale", 측정도구 개발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로 의미분법과 요인분석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본 연구의 목적인 국내 복식사회·심리학 계열의 연구경향은 어느정도 정리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각 대학 학술지에 게재된 교수논문들 총 망라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으며 연구의 하위변인의 분류과정에서도 다소 애매한 것은 기타항목으로 분류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복식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전망되는 연구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복식사회심리학은 심리적으로인에 대한 연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리라 전망하나 대인지각 및 인상형성에 관한 실험적인 연구와 의상요법을 위한

심리 및 정신 부적응자의 연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질문지법에만 한정되어 연구하는 것이 아닌 자극물의 사용이나 기타 실험법등의 개발로써 좀 더 적극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가정학의 최신정보 II, 의류학편, 대한가정학회편」, (서울 : 신광출판사 1984) p.158.
- 2) 이인자, 「복식사회심리학」 (서울 : 수학사, 1984), p.11.
- 3) 이인자(1984), 전게서.
- 4) 「가정학의 최신정보 III, 의류학편, 대한가정학회편」, (서울 : 신광출판사 1992).
- 5) 정찬진, 박신정, 황선진(1991), 앞논문.
- 6) 조필교(1986), 앞논문.
- 7) 이인자, “여대생의 의복디자인 기호와 흥미와의 상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74, 12권 3, 4호 합본).
- 8) 이명희, “예의, 정숙성과 심미성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의 의복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1983).
- 9) 송선옥, “첫인상 형성에 미치는 의복과 인물의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1982).
- 10) 나광주, “의복과 헤어스타일의 인상형성에 대한 관심도 : 광주지역 여대생을 중심으로”, 조선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1990).
- 11) 이주현,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1990).
- 12) 김광경, “1학년 여대생의 가치관과 의상관심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1974).
- 13) 안정자, “가치관과 의복선호간의 연구-여대생을 중심으로”,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1978).
- 14) 이인자, “여자대학생의 의복디자인 기호와 성격간의 상관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1974).
- 15) 임춘봉, “대학생의 자아개념과 의상행위와의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1974).
- 16) 이남미, “교사의 의상행태가 학습의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복과 심미성, 유행성, 색채를 중심으로”,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1979).
- 17) 이금실, “의복의 신분상징성과 사회심리학적 변인과 상관관계”,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1978).
- 18) 정하신, “의상흥미와 욕구와의 상관연구-여자대학생을 중심으로”,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1982).
- 19) 이인자(1974), 앞논문.
- 20) 정삼호, “물려받은 학령기 아동의복의 인식에 관한 연구-가족구성 서열에 의한 연령차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1981, 5권 1호).
- 21) 김영옥, “소득계층별 학령기 아동복의 인식”,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1975).
- 22) 강은숙, “학령기아동의 의복행위와 사회계층간의 상관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1981).
- 23) 이경남, “사춘기 여학생의 의복행동, 가정배경 및 학급내 인기도간의 상관연구”, 서울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1982).
- 24) 김민수, “자의식과 의복동조성과의 관계연구 : 서울시내 여대생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1978).
- 25) 정미실, “남자 중, 고등학생의 의복행동과 지각형성과의 상관연구 : 의복의 동조성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1981).
- 26) 정삼호, “Jean을 중심으로 한 여대생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1977).

- 27) 최혜선, "의복행동과 사회적 안전감·불안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서울시내 여고생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1981).
- 28) 윤혜경, "중학생의 팝음악 및 유행의상 선호도에 관한 연구: 사회계층 및 스트레스요인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1990).
- 29) 신현영, "정상인 및 정신질환자의 우울과 의복 디자인 선호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1987).
- 30) 이순화, "정상인과 신체장애자의 성격특성이 의복행동 및 의복색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여고생 및 여대생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1989).
- 31) 이인자, "정상인과 정신장애자의 욕구와 의복행동간의 상관관계 연구", 중앙대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1984).
- 32) 정미경, "정상인과 지체부자유자의 자아개념과 의복행동과의 관계연구: 중년여성을 중심으로",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1987).
- 33) 이인자, "의상의 흥미도 측정을 위한 검사지 개발에 관한 연구" 건국대 생활과학 연구소 연구보고 3, (1980)
- 34) 이인자, "의상의 흥미도 검사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복식학회지, (1986, 10호).
- 35) 송선옥(1982), 앞논문.
- 36) 고애란, "Suit의 색과 신체노출이 정숙성 인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1992).
- 37) 홍병숙, 정미경, "여성수트의 이미지 구성 요인에 관한 연구", 복식학회지 (1993, 20호).
- 38) 김재숙, "의복범주, 유행성 및 착용자의 연령의 인상효과에 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1991).
- 39) 고은기, "학령기 아동의 의복행동과 자아존중감과 의 관계",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1987).
- 40) 정희용, "노년기 여성의 자아지각과 의복관심과의 상관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1988).
- 41) 강경자, "의복의 정숙성, 심미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I)", 대한가정학회지 (1992, 30권 4호).
- 42) 송종연, "여대생의 유행의복만족도 연구",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1988).
- 43) 이금실(1978), 앞논문.
- 44) 이인자(1974), 앞논문.
- 45) 간문자 "여성의 직업과 의상흥미간의 상관성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1982).
- 46) 정하신(1982), 앞논문.
- 47) 이인자(1980), 앞논문
- 48) 정미실, 강혜원, "정보적 영향에 의한 의복동조성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91, 29권 3호).
- 49) 황선진, "복장사회심리학에서 측면에서 본 의복동조성에 관한 분석 연구", 복식학회지, (1989, 11호).
- 50) 원선주, "학령기 아동의 성역할 정체감과 의복행동연구",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1989).
- 51) 원선주(1989), 앞논문.
- 52) 김영옥(1975), 앞논문.
- 53) 김애련, "사회계층과 의복구매행위에 관한 연구-서울시내 여고생을 중심으로",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1986).
- 54) 임숙자, 임치경, "노년기 여성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의복행동간의 상관연구" 복식학회지 (1986, 10호).
- 55) 이인자(1984), 앞논문.
- 56) 이인자(1986), 앞논문.
- 57) 박혜선, "의복에 대한 의미미분척도 개발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1982).
- 58) 박은주, "의복선택기준에 관한 측정지 개발의 기초연구(II)", 대한가정학회지, (1987, 25권

- 4호).
- 59) 배정주, "유행선도력 척도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1988).
 - 60) 이명희, "학령기 아동의 의복행동추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4, 5, 6, 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87, 11권 2호).
 - 61) 박혜선(1982), 알논문.
 - 62) 김성영, "성인남자의 의복습관에 관한 연구-명동과 구로 공단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1986).
 - 63) 권영남, "여자중학생의 의복행동과 지능과의 관계-대구시 여자중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1984).
 - 64) 정금옥, "여고생의 직업적성과 의복행동과의 상관성 연구-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1992).
 - 65) 이승옥, "유행색과 사회현상과의 관계성연구-1971년부터 1985년까지의 유행색을 중심으로", 건국대 대학원 석사 학위 청구논문(1987).
 - 66) 장기숙, "여고생의 의복행동과 창의성과의 관계".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1984).

ABSTRACT

An Analysis on the Research Trends of Social Psychological Aspects of Cloth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nd

analyse established studies of clothing psychology and marketing, showing the disciplinary trends, problems and the outlook of social psychological Aspects of clothing.

To achieve the purpose, 621 articles have been used. -519 for master's and doctor's degree and 102 reported in journals-on social psychological Aspects of clothing for the past two decades (1974~1994) in Korea.

All of these annual data were classified into making five years a unit. In the statistical analysis 'frequency' and 'percentage' were applied. To verify the degree of significance, χ^2 -test were used.

1. The trend of the study on the fields of clothing psychology, consumer behavior and marketing over the period between 1974 and 1994 showed the continual trend of increase since the 1974 that the article on the field of clothing the continual trend of increase since the 1974 that the article on the field of clothing psychology was first reported.

2. The domain that has the greatest proportion in the field of clothing psychology is concerned with the individual psychological factor and the study concerning interpersonal perception and development the measurement tool showed the tendency to continue to increase.